



일도2동의 꿈

제 86 호

- 발행처 : 일도2동주민자치위원회
- 발행인 : 김두경 ■ 편집인 : 임일순
- 발행일 : 2020년 12월 1일
- 편집디자인 : 제주출판인쇄공사 ■ 인쇄 : 고려인쇄
- (우) 6327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28(일도2동)
- 전화 : (064)728-1529 ■ 팩스 : (064)723-0823

會者定離

-11기 주민자치위원회를 마무리하여 … -



동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주민
자치위원회가 되겠다는 큰 머리말
을 쓰고 새해인사를 드리면서 11
기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활동한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
니다.

제가 환갑이 되는 황금돼지해여
서, 그 누구보다 큰마음 좋은 생각
과 일도2동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큰 기대로 출발했습니다만, 마무
리를 하는 지금에 와서 2년을 뒤돌아보니 커다란 느낌도 작
은 회한도 느껴지질 않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의
일상이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 년이 되도록 언론의 헤드라인 뉴스는 코로나19의 확
진자, 사망자 뉴스이며, 전 세계인의 당황과 공포를 여과
없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하게 올림픽이 연기되고 어느 나라에 지진이 일어나고
산불이 몇 달째 계속 되어도, 우리네 삶의 어려움이나 추미
애와 윤석열의 꼴사나운 언쟁도 코로나19의 영향력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착용방법, 가정 환기 소독 등등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을 배우고 따르고 있습니다.

언제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되어 과거로 돌아갈지는 아무
도 모르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며, 포스트 코로나19
의 사회는 과거와는 분명히 다를 것을 우리 모두는 인지하
고 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 내년에는 또 새로운 해가 들 것
이며, 일도2동에는 또 다른 회기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
될 것이고 또 다른 미래를 얘기할 것입니다.

화엄경에 쓰여 있는 회자정리 거자필반(會者定離 去者必
返)이란 불교의 윤회사상이 큰 스님들만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사소한 모임이나 인간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11기 주민자치위원회의 2년간 일도2동에 대한 헌신이나
사업의 성과는 후대들이 판단하
겠습니다만, 자치위원님들과
함께한 강원도 일원의 선진
지 방문이나 제주동·서부
지역 역사문화탐방은 참으
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동 주민센터 직원들과 함께한 명도암에서의 워크숍도 기
억이 뚜렷하고 회의 중에 갑론을박(甲論乙駁)으로 다투던
기억에 살짝 얼굴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던 기억도,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
한 기억도 나의 인생살이 기억이고 추억입니다.

이렇게 2년의 기억은 우리의 소중한 추억으로 기록될 것
이고, 어쩌다 길거리에서 만나면 소주한잔하며 과거를 애
기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세상 살기가 커다란 이슈 없이 고만고만한 장삼
이사(張三李四)의 삶이 최고 아닐까요?



'꿈처럼 떳떳이 짧은 인생
집착 벗어나 멋있게 살자'라는
의미의 금강경 몇 자를 적으며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일도2동 동민여러분! 자생단체
회원 여러분!! 주민자치위원 여러분!!!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一切有
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금강경 제32 응
화비진분에 나오는 사구계의 내용입니다.

(일체현상의 모든 생멸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
풀과 같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응
당 이와 같이 불(觀) 것이니라.)

함께 모여서 자치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권리와 인
생에 대한 담론으로 하루를 보내고, 서로 손잡고 산을 오르
며 대한민국의 자연과 제주의 역사를 얘기하며 어깨동무하
여 찍은 사진은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송년힐링의 밤에서 막춤을 같이 추고, 고마로마문화축제
에서의 행진과 댄스발표도 기억에 남을 것이며, 특화프로
그램이나 자치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재활용과 리사이클
링에 대한 이해와 어르신들의 웃음, 취약가구 고추장 나눔
사업을 같이한 기억도 새롭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여러 부분에 너무나 많
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로간의 만남의 인사에서부터 대화 예절, 식사 방법,
사회적 거리두기, 감염증 예방수칙, 개인 생활수칙, 마스크



지면소개

1면_ 會者定離-11기 주민자치위원회를 마무리하며… · 김두경

2면_ 오피니언_ 바이든 당선자와 한반도의 평화 · 양길현 / 축하의글_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 실현해가는 제주시 일도2동주민자치위원회 · 김용주

/ 건강상식_ 여기가 아프면 거기도… 병에도 커플 있어요 · 김동근

3면_ 동부지역역사문화탐방 · 모상준 / 들꽃 · 고재민 4면_ 주민자치위원회생생증계실 / 문화에 빠지다

5면_ 관내초등학교이모저모 6면_ 사람과사람들 / 기고_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 김민경 7면_ 알림 / 홍보 8면_ 알림 / 홍보



오피니언**바이든 당선자와 한반도의 평화**

바이든과 이건희·두 분 다 1942년생으로 78세다. 한 분은 바로 지난달 영면했지만, 다른 한 분은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취임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건희도 건강했다면 경제가 어려운 이때 기업이 위드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헤쳐갈지·그 어떤 시사와 전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런가 하면 예상하기는 했지만, 막상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기는 걸 보면서 미국과 세계가 바이든 당선자에게 기대하는 건 무얼까를 생각하게 된다. 특히 한반도의 반쪽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바이든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미국이 돌아왔다.' 바이든 당선자의 대외적 언명이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과는 다른 대외정책을 취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언론에서는 즉각 미국우선주의라는 트럼프 노선의 폐기라며 기대를 표하고 있다. 그럼에도 포퓰리즘을 안고 있는 21세기 대중적 민주정 하에서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식을 쉽게 버릴 수 있을까는 의문이다. 바이든이 전통적 동맹을 복원한다고 외친들, 그게 자국중심을 포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바이든에 의해 돌아오는 미국이 혹 내일의 미래지향적 미국이 아니라 어제의 전통을 중시여기는 미국이라면, 그게 어떤 것일지 일면 의구심도 없지 않다.

우선 바이든의 미국은 트럼프 때와 비교할 때 보다 온건한 미국 우선주의이고 보다 세련된 미국 예외주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그 점에 관한 한 트럼프는 무대뽀였다. 품위와 격조와는 거리가 먼. 그렇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군산복합체의 보이지 않은 영향력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바이든의 정치 경륜이 혹 20세기 미국의 시대와 영광을 추억하고 되살리는 데로 향하지나 않을까 하는 노파심도 있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준비를 해 왔다는 점에서 바이든은 위드코로나 시대를 헤쳐 나가는 공감 리더십을 통해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미국'의 복원만이 아닌 재창조를 시도

해 주리라 기대해 마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바이든이 1987년 당시 전두환 정부의 '4·13호헌에 깊이 우려'를 표했던 만큼, 민주정에 대한 그의 신념에는 믿음이 크다. 다만 1987년 이후 30여년이 지난 한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미래지향적으로 중시 여겨야 할 것. 그것은 한국의 민주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이다. 왜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에서 시소게임만 별이다가 아무 결과없이 끝나버렸는지에 대한 성찰과 함께 창의적이고 담대한 반전이 요청된다.

트럼프 때의 싱가폴·하노이·판문점을 넘어서야 한다. 북미가 서울·평양·와싱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해 나가는 일련의 행보에서 바이든이 선도적 영향력을 발휘해 주길 소망해 본다. 트럼프 때처럼 기대의 좌절이 환멸을 낳지 않도록. 대중관계와 관련해서도 미국 국민들의 73%가 중국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에 대해 강경 정책을 고수한다면 미래의 미국도 고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팬데믹과 그 이후를 위한 세계전략은 지난 날과 같은 패권 경쟁과 대결이어서는 안 되리라 본다. 그 것은 상호존중과 공동번영의 원칙을 현실화하는데 있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새로운 미국 건설에 한반도의 평화가 깊게 연동되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미·중·일·북·미 등 동북아의 대치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지렛대가 되도록 하는 데에 바이든의 4년은 결코 길지가 않다. 그 시작은 북한 주민들이 미국·남한으로 오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데 있을 것이다. 2021년 중으로 연락사무소라도 설치하도록 한다면 그리고 평양 순안 공항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환한 미소를 볼 수 있다면, 그로써 바이든은 '내 나이가 어때서'를 넘어서는 노의장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평화라는 값진 나무를 심었다고 두고두고 호평을 받으리라 본다.

**◇ 류마티즘 관절염→동맥경화·갑상선질환**

한양대 류마티스병원이 류마티즘 관절염 환자 4721명을 주제 조사한 결과, 이 중 26%에서 동맥경화증·고혈압 등 심혈관질환이 발생했다. 갑상선질환 등의 내분비질환(15%)도 많았다.

배상철 한양대 류마티스병원장은 "류마티즘 관절염이 생기고 10년쯤 지나면 염증 유발 물질이 심혈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갑상선질환은 류마티즘 관절염처럼 자가면 역질환이기 때문에 면역체계가 고장난 사람은 두 질병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류마티즘 관절염이 생겼을 때 동반질환 발병을 막으려면 발병 2년 안에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이미 동반질환이 생긴 경우, 각 질환의 치료제를 함께 복용해도 된다.

◇ 갑상선질환→후두질환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선동일·유방갑상선외과 배자성 교수팀이 갑상선암·갑상선양성결절·갑상선기능 항진증 등으로 갑상선질제술이 예정된 환자 500명을 조사

여기가 아프면 거기도… 병에도 커플 있어요

한 결과, 35.8%가 갑상선과 관련 없는 후두질환을 갖고 있었다. 인후두 위산역류(27.2%)가 가장 많았고, 성대결절(4.8%)·성대플립(1.8%)·성대마비(1.2%) 등이 뒤를 이었다.

선동일 교수는 "갑상선질환이 있으면 목이 불편해져 헛기침 등을 많이 하게 돼 후두가 잘 상한다"고 말했다. 이 때는 갑상선 절제술을 하기 전 약물치료를 받거나, 갑상선 절제술과 후두질환 수술을 동시에 받는다.

◇ 비만→치매

건국대충주병원 가정의학과 김은태 교수팀은 국내 성인 남녀 293명을 체질량지수(BMI)에 따라 정상 그룹(23 미만)·과체중 그룹(23 이상~25 미만)·비만 그룹(25 이상)으로 나눠서 치매 발병 위험을 조사했다. 과체중 그룹과 비만 그룹은 정상 그룹보다 치매 위험이 각각 2.2배와 2.5배 높았다.

김은태 교수는 "비만 때문에 지방세포가 늘면 염증 유발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분비량이 많아지고, 사이토카인은 알

축하의 글**주민과 소통하며 함께 실현해가는 제주시 일도2동주민자치위원회**

양길현
제주대학교 교수



김용주
군포2동 주민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군포시 소재 군포2동 주민자치위원장 김용주입니다.

제주시 일도2동의 "함께해요 일도2동의 꿈" 10년 모음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저희는 제주시 일도2동과 2003년 6월 자매결연을 맺고 2007년 제주감귤 판매, 2010년 지역홍보협약 체결, 2011년 철쭉축제, 책읽는 군포 흥보, 2011년, 2012년 세계7대자연경관 흥보, 2013년 주민자치사업 비교체험, 2014년 일도2동 군포시 방문, 2019년 군포2동 제주도방문 등을 통해 주민자치기능의 활성화와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주시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교류는 참으로 뜻깊은 시간이였습니다. 다른 지역과 교류하여 공유하며 실현해가려 했던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다웠으며 이번에 발간되는 "10년 모음집"에 잘 담아져 있을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며 주민과 함께하는 단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민과 소통하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실현해가야합니다. 제주시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까지 그러한 길을 잘 걸어 왔으며 앞으로도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아마도 주민자치위원회의 모든 사업이 대부분 취소되거나 축소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비대면 소통의 방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만나기 힘들수록 만남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면이 안되어 한계가 있지만 주어진 환경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우울함을 떨쳐내고 "10년 모음집" 발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맘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저희에게 보여준 제주시 일도2동주민자치위원회의 열정을 발휘하셔서 더욱 발전하실 것을 축원합니다.

김동근/주민자치위원장

출처 : 한희준 헬스조선 기자

초하이머성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되는 것을 듣는다"고 말했다.

◇ 통풍→대사증후군

통풍과 대사증후군은 서로 상대방을 유발한다. 을지병원 류마티스내과 허진숙 교수는 "통풍 환자의 3분의 1 정도는 대사증후군을 앓는다"며 "통풍과 대사증후군 모두 고칼로리 식품이나 알코올 섭취 등의 식습관이 간여하고, 대사증후군의 주요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은 요산 배설을 억제하거나 요산 생성을 촉진해 통풍을 촉진한다"고 말했다.

※ 생활습관 고치면 동반질환 예방 가능

동반질환은 합병증보다 생활습관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황환식 교수는 "합병증은 보통 원인 질병이 심해지면서 생기지만, 동반질환은 생활습관이 한 뿌리가 돼 서로 다른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생활습관을 고치면 상당수의 동반질환을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

동부지역 역사문화탐방

전반기 서부지역 역사탐방에 이어 하반기 역사문화 탐방으로 제주동부지역을 다녀왔다.

첫 번째 탐방지로 평대리에 소재한 천년의 숲 비자림을 택했다.

1993년에 천연기념물 제374호로 지정된 비자림은 수령 300~600년된 비자나무 2,600여 그루가 숲을 이루어 장관을 연출하고 있는 곳으로 중앙의 새천년 나무와 연리목이 유명하다.



국내의 다른 비자나무와 제주도내의 모든 나무 중 최고령 목으로서 지역의 무사안녕을 지켜온 숭고함을 기리고, 희망과 번영을 구하는 새천년의 문을 열면서 '새천년나무'로 명명된 새천년나무는 2000년에 세운 탐방로 입구의 안내비에 수령이 813년이며 세계 최대 비자나무 군락지의 최고령목이라고 적혀 있다.

연리목에 대한 설명에는 두 나무가 서로 맞닿아 한 나무가 되는 현상을 연리라 하며 줄기가 맞닿으면 연리목, 가지가 연결되었으면 연리지라 한다고 한다.



연리목을 잘라보면 마치 쌍가마처럼 한꺼번에 두 개의 나무테 두릅이 들어 있다고 하며, 연리목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부부가 만나 한 몸이 되는 과정과 아주 닮아서 사랑나무라고도 하며 남녀 간의 변치 않는 사랑을 나타내기도 한다.

두 번째 탐방지로 1931~32년 구좌, 우도, 성산 등 제주 동부지역 해녀들이 일제의 식민지 경제 수탈정책에 항거하여 연인원 17,000여 명이 참가한 국내최대 여성 항일운동을 기린 제주 해녀항일운동 기념공원을 찾았다.



일제의 착취로 생존권을 위협받던 하도, 종달, 세화, 연평, 시흥리 등의 해녀 100여명이 비밀 결사조직인 혁우동맹의 조직적인 지휘아래 1932년 1월 12일 세화 오일장 날에 새로 부임한 제주도사 다구치의 차를 가로막아 실질적으로 감금시켜 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일본순사들이 검을 뽑아서 위협하자 해녀들은 죽음으로 맞서겠다며 대응하니,

검에 질린 제주도사는 해녀들의 모든 요구조건을 5일내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며 감금에서 풀려난다.

일제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 소식은 조선, 동아일보를 통하여 상세히 보도된 사건으로서 70여년이 지나 부락민들의 기념사업회를 만들면서부터 조명되기 시작했다.



별방진은 1510년 장립목사가 우도에 왜구가 접근하기 쉬우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해 김녕 방호소를 하도리에 옮겨놓은 진이며, 제주도 기념물 제24호로 지정된 9진 가운데 하나이다.

현재 동문지와 서문지는 민가에 의해 변형되어 그 위치만 겨우 찾아볼 수 있으며, 남문지는 용성만 훠손이 심한 상태로 남아 있고 문루는 찾아볼 수 없다.

치성은 서문과 남문 사이에 있는 치성 중 서문 쪽 2개소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빛의 벙커는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물입형 미디어아트 전시장이다.



원래 비상시 제주도에 전력을 공급하는 광케이블시설이었다가 폐쇄된 후 티모네이란 업체가 인수해 세계 유명화가의 미술품을 영상과 음악을 종합한 디지털 작품으로 만들어 공연하고 있다.

2018년도에는 구스타프 클림트와 훈데르바서의 작품을 전시했고, 현재는 빈센트 반 고흐와 폴 고갱의 강렬한 삶과 작품이 영상물로 상영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총무 모상준

꽃



청미래 뎅굴



새비나무



굴거리나무



천남성

사진 / 고재민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위•원•회•생•생•중•계•실•

특화프로그램 '리사이클링을 업(up)하다' 체험 및 작품 전시회

2020. 10/23(금) 14호 어린이공원에서 동민 및 주민자치위원 150여명이 참석하여 오전. 오후 염색체험, 방향제, 꽃화분 만들기를 시작으로 늘솜창작소에서 10/28(수) 코사지 만들기 10/31(토) 제일지역아동센터와 염색체험 11/2(월) 차 반침대 만들기 체험을 하고 만들어진 제품들을 11/17~11/20일 까지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전시하고 동민들에게 기증했다.



코로나19 민간차원 방역(소독)활동

2020.09/28, 10/12, 10/26, 11/9, 11/17에 걸쳐 관내 버스정류소 42개소와 어린이공원에서 방역활동을 전개했다.



주민자치학교 운영

2020. 11/13(금), 11/17(화) 14시부터 16시까지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2회차 일도2동 2020년 온라인 소규모 현장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였다.



취약계층 가구 고추장 나눔사업

2020. 11/20(토) 13:00부터 두맹이복지회관에서 자치위원 20여명이 참석하여 고추장 만들기(2kg 140여통)를 실시하고 취약가구에 전달했다.



문화에 빠지다

지금은 작가와 관객이 따로없는 생활문화의 시대이다. 시민의 문화 향유가 늘어야 시민의 행복도가 높아진다.

일도이동에는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있어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다.

바쁜 일상에 짬짬이 시간을 내어 내 마음의 창을 채워 볼 만하다.

문화예술진흥원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나눔 예술 무대

- 일시 : 2020. 12. 05 17:00 • 관람료 : 비대면
- 장소 : 대극장 • 문의 : 064-710-7643

설아이청소년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 일시 : 2020. 12. 06 16:00 • 관람료 : 비대면
- 장소 : 대극장 • 문의 : 010-5756-1843

현지역아동센터 난타 단독 콘서트

- 일시 : 2020. 12. 06 10:30 • 관람료 : 비대면
- 장소 : 소극장 • 문의 : 010-6639-6514

화복원드오케스트라 제7회 정기연주회

- 일시 : 2020. 12. 07 19:30 • 관람료 : 비대면
- 장소 : 대극장 • 문의 : 010-3693-8628

제16회 제주장애인문화예술제

- 일시 : 2020. 12. 11 15:00 • 관람료 : 비대면
- 장소 : 소극장 • 문의 : 010-2686-5467

2020 제주합창페스티벌

- 일시 : 2020. 12. 12 19:00 • 관람료 : 비대면
- 장소 : 대극장 • 문의 : 010-8662-9028

제주시조시인협회 시조토크

- 일시 : 2020. 12. 12 18:00 • 관람료 : 비대면
- 장소 : 소극장 • 문의 : 010-2689-7764

아트컴퍼니 봄 뮤지컬 스크루지의 크리스마스

- 일시 : 2020. 12. 18 19:30 • 관람료 : 비대면
- 장소 : 소극장 • 문의 : 010-9567-2864

2020 독거노인돕기 자선음악회

- 일시 : 2020. 12. 18 16:00 • 관람료 : 무료
- 장소 : 대극장 • 문의 : 010-3693-7510

오주니어 타악기 암살불 제7회 정기연주회

- 일시 : 2020. 12. 20 18:00 • 관람료 : 무료
- 장소 : 대극장 • 문의 : 010-4690-2596

제5회 정기연주회 섬 그리고 아버지

- 일시 : 2020. 12. 21 19:30 • 관람료 : 비대면
- 장소 : 소극장 • 문의 : 010-9567-2864

2020 제주 뮤지컬 페스티벌 '비커밍맘'

- 일시 : 2020. 12. 24 19:30
- 관람료 : 무료(문예회관 홈페이지 예매)
/ 온라인 실황 송출 예정
- 장소 : 대극장 • 문의 : 064-710-7643

2020 제주 뮤지컬 페스티벌 '6시퇴근'

- 일시 : 2020. 12. 27 17:00
- 관람료 : 무료(문예회관 홈페이지 예매)
/ 온라인 실황 송출 예정
- 장소 : 대극장 • 문의 : 064-710-7643

아리스리 소리앗 제2회 정기공연

- 일시 : 2020. 12. 30 19:00 • 관람료 : 무료
- 장소 : 대극장 • 문의 : 010-2922-5599

관내 학교 이면7면

인화초등학교

4학년 찾아가는 VR 체험교실 실시



인화초등학교(교장 김혜란)는 11월 17일 (목) 4학년 1반 학생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후원을 받은 (주) PNIcompany 업체에서 실시하는 '2020 찾아가는 VR 체험교실'에 참여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화산활동 결과로 생성된 제주도의 여러 지역을 가상현실로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제주의 세계 자연유산 (꽃자왈, 성산일출봉, 백록담, 주상절리, 만장굴 등)을 둘러보며 화산활동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하나인 실감미디어의 효과를 체험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수업의 질을 높이는 동료장학 실시



인화초등학교(교장 김혜란) 10월 9일(월)부터 11월 27일(금)까지 수업에 대해 성찰하고 수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동료장학을 실시하였다. 코로나19로 제한된 교실수업 여건 속에서도 수업 연구 및 공개, 나눔을 통해 수업에 대해 성찰하고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6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수업을 하기에 앞서 동료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수업 전개 계획을 치밀히 세우고 수업 후에는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후협의 과정을 통해 수업의 개선점을 찾았다. 이번 동료장학을 통해 수업에 초대해 고민하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수업 문화를 조성하고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교실 수업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된다.

동광초등학교

2020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실시



동광초등학교(교장 김지혜)에서는 11월 24일(화) 10:00~10:40까지 지진화재 대피훈련을 실시하였다. 제주도교육청 지정 '2020 어린이 재난안전 훈련 참여학교'인 동광초등학교는 5학년 학생들이 핵심 훈련대피요원이 되어 가상 시나리오 및 화재대피훈련을 총 기획하였다.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훈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 재난 대피훈련은 전교생 (1,068명)이 참여하였으며 사전에 안내 없이 실제 상황처럼 이루어졌으며 많은 인원이 대피하는 훈련이었음에도 여려 대피로를 이용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교생 등교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이번 훈련을 통해 학생들은 실제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훈련대피요원이 직접 되어 봄으로써 재난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고 더욱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일도초등학교

전통문화체험활동 교내 체험학습 실시



일도초등학교(교장 고종희)는 11월 2일(월) 3~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체험활동 교내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제주도 전래놀이 및 놀이도구 만들기를 통한 제주도 전통문화 체험하기를 주제로 실시한 본 행사는 활쏘기, 뱃줄놀이, 씨앗 퍼트리기, 팽이 만들기 4개의 부스로 활동이 운영되었다. 이번 전통문화체험활동 교내 체험 학습을 통해 일도초 3~5학년 학생들은 직접 경험하고 탐구해봄으로써 체험의 폭을 확장할 수 있었으며, 전통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지켜야겠다는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뜻깊은 체험이 되었다.

학교 내 정서지원공간 인증마크 획득



일도초등학교(교장 고종희)는 11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 내 정서지원공간 인증마크를 획득하여 부착하였다. 정서지원공간은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안전을 드는 공간으로 지난 3월에 '마음쉼팡' 이란 이름으로 개소를 하였다. '마음쉼팡'에는 놀팡, 마음팡, 쉼팡, 나눔팡으로 구분이 되어있으며, 모션가든, 스윙체어, 플로어카페 등을 구비하여 학생들이 언제라도 심리적 안정을 필요로 할 때 찾아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학교 내 정서지원공간 인증마크 획득 소식을 들은 한 학부모는 '정서적 불안과 분노 조절 장애 등을 표출하는 아이들이 정서적 어려움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2020학년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실시



동광초등학교(교장 김지혜)에서는 11월 30일(월) 09:00부터 본교 체육관에서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최낙균 변호사(법률사무소 윤현)의 강연을 통해 사이버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범죄 유형과 학교폭력의 실제 사례들을 알고 사이버세상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야 할 청소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느끼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동광초 어린이들은 앞으로 사이버폭력과 학교폭력 없는 동광초등학교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하였다.

사/람/과/사/람/들

일도2동통장협의회

어린이놀이터내 방역 실시



일도2동 통장협의회(회장 고광언)에서는 10. 30.(금) 17:00부터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놀이터내(11개소) 방역활동을 실시하였다.

기초질서지키기 활동 전개



일도2동 통장협의회(회장 고광언)에서는 11. 24.(화) 17:00부터 인체사거리를 중심으로 4개조로 편성하여 기초질서지키기 활동을 전개하였다.

바르게살기운동일도2동위원회

코로나19 공공시설 방역(소독) 전개



바르게살기운동일도2동위원회(위원장 강찬종)에서는 11. 2(월), 9(월), 23(월)에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마로 일대에서 코로나19 예방 방역활동을 전개했다.

일도2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코로나19 차단 방역활동 실시



일동2동 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한관섭)에서는 2020. 11. 3(화), 11(수), 16(월) 16:00부터 협의회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관내 클린하우스 30여개소 등 자체 방역활동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전개



일동2동 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한관섭)에서는 2020. 11. 5(목), 26(목) 18:30, 협의회 회원 및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고마로 일대 및 공원 주변에서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기초질서지키기 도로 위 노상 적치물 단속



바르게살기운동일도2동위원회(위원장 강찬종)에서는 11. 26.(목)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기초질서지키기의 일환으로 도로 위타이어, 물통, 폐인트통 등 적치물 단속활동을 전개했다.

일도2동 지역자율방재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전개



일도2동지역자율방재단(단장 오영진)에서는 11. 4(수)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자율방재단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일도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11월 정례회의 개최



일도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홍성철, 한재림)에서는 11. 18.(수) 두맹이복지회관에서 11월 정례회의를 개최하였다.

'모다들엉 출래 맹글양 복지사각지대 취약가구 지원사업'에 따른 밀반찬 전달



일도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홍성철, 한재림)에서는 11. 18.(수) "모다들엉 출래 맹글양 복지사각지대 취약가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취약계층에 김장김치를 전달하기로 하였다.

기고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민원업무를 하다보면 흔히 볼 수 있는 발급 서류 중 하나가 인감증명서이다.

인감증명서는 도장이 증명형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매매, 금융거래 등 경제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다.

그러나 인감증명서는 신청자가 주소지에 인감도장을 제작, 등록해야하고 분실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허위 대리 인감증명이 발급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인감증명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증명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것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과 달리 사전에 등록하지 않아도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 구체적인 용도를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인감증명에 비해 편리성과 안전성이 높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최초 1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발급시스템 사용을 신청하면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 신분 확인을 거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2012년부터 시행됐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자동차 매매상사와 같은 수요기관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관행 등으로 인감 대비 발급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알고 보면 인감제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하루빨리 우리 실생활에 정착되기를 바란다.



김 민 경
일도2동주민센터

기초질서 지키기는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환경질서, 교통질서, 도로질서 확립
우리의 힘으로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환경질서 T. 728-8021~2

올바른 분리배출하기, 쓰레기 불법투기 안하기, 일회용품 안쓰기

- ✓ 종점단속대상 :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및 혼합배출행위, 클린하우스 등 지정된 장소 이외에 생활쓰레기 배출행위, 공공장소에 담배꽁초 등 투기 행위
- ✓ 축제장, 장례식, 예식 등 행사장, 커피숍 등 1회용품 사용 안하기

교통질서 T. 728-8025

주변 주차장 이용, 걸어서 이동하기, 인도·횡단보도 위 주·정차 안하기

- ✓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동차는 주차장에 세우기, 걷기, 자전거타기,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합시다!
- ✓ 불법 주·정차 중점 단속지역 : 인도 및 횡단보도 위, 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안전지대 등

도로질서 T. 728-4445

상가, 내집 앞 도로 위 물건 안두기

- ✓ 단속대상 : 집 앞 물통·폐타이어, 상가 앞 노상 식탁·광고물

더불어 살기 좋은 일도2동 마을 만들기
함께하는 행복, 변화하는 일도2동

잠깐!

Jeju 일도2동 주민센터 일도2동 자생단체

불법 주·정차 여기는 절대 안됩니다!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신고대상 구간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지)
(금지 표지판/노면표지)
*2020년 6월 29일부터 시행

소화전 주변 5m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버스 정류소 10m
정류소 표지판 하우 또는 노면표지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

*신고(접수) 요건
사진 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사례와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활행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어린이보호구역 신고는 반드시 사진 상 어린이 보호구역임이 확인되어야 함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인천신문고)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리

소방차량 우선 통행을 위한 신호제어 시스템

13개 교차로 운영

소방차 긴급출동시 자동으로 녹색불!
신속한 소방차 출동으로
제주도민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 소방차 교차로 진입시 직진·좌회전 동시신호
- 우선신호시 버스종양차로 운행은 정지
- 교차로 예측 출발NO!

Jeju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지원제도 홍보



정착주민지원 정책 제도적 기반 마련

조례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4. 4월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조 전면 개정 : 2017.7.20

- 정착주민 관련 용어 정의
- 정착주민 등 지원
-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정착지원위원회 설치
- 정착지원센터 운영 등
- 정착주민 (정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 라 한다)로 이주하여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하고 실제 거주하고있으나 제주자치도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정착주민의 조기 정착과 지역공동체 조성 사업

- 정착주민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 지역주민과 정착주민간 공감대 형성과 공동체 의식 제고 교육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주민과 정착주민간의 공동사업 및 네트워크 강화사업 등

부서별	지원내용
자치행정과	제주정착주민 지원업무 총괄
친환경농업정책과	귀촌·귀농인 지원에 관한사항
농업기술원	귀농인 교육에 관한 사항

정착주민 지원센터 안내

- 정착주민 지원 센터 운영 : 46개소(도, 행정시, 읍·면·동)
행정기관 내 정착주민 상담 등 전담 창구 운영
→ 이주정보 제공, 생활불편사항 수렴 및 해소 지원, 지역소통, 교류 지원 등

2020.11.12. 제작



모든 국민이 아실 때까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올해 말까지 시행!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 **재산기준**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 재산 차감 기준 반영 시
- ✓ **금융재산** 1인가구 763만 원, 4인가구 1,212만 원 이하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65% → 150%) 반영 시

12월 31일(목)까지 신청하세요!

신청 : 시군구청

상담 :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시민의 힘으로 제주시

요일별·종류별

재활용품은 이렇게 배출해 주세요!

배출시간 :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까지
※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는 24시간 배출 가능합니다.



가장내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전용 종량기에
배출해 주세요
(봉투 배출금지)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음료와 생수에 사용되었던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도움센터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으로 배출해 주세요!

- 내용물을 써~악 비우기
- 라벨은 찍·제거하기
- 피그리트리고 화~악 투명 단기
- 페트병 배출함에 배출하기

2020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행이 의무화됩니다!

투명 페트병

유색 페트병·플라스틱과 구분해
분리배출 해주세요!



음료와 생수에
사용된 투명 페트병
를바른 분리배출방법

- 내용물을 써~악 비우기
- 라벨은 찍·제거하기
- 피그리트리고 화~악 투명 단기
- 페트병 배출함에 배출하기



한국수출자원 유통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